

● 특집 ●

# 꿈꿀 권리를 누리는 곳, 정독도서관

- 지역주민과의 만남, 소통, 어울림이 있는  
독서 · 문화예술프로그램 -



이 경 희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문화활동지원과장  
library@sen.go.kr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고 꿈을 키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평생교육장이라 할 수 있다. 정독도서관은 다양한 독서 · 문화 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의 만남, 소통, 어울림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넓은 세상을 만나고 경쟁보다 어울림을 배울 수 있는 곳, 그곳은 도서관이다. 나이가 많은 적든, 장애가 있든 없든, 말이나 얼굴색이 달라도 누구나 배우고 알 권리, 꿈꿀 권리를 누리는 곳이다.

누구나 책으로 넓은 세상을 만나고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독서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찾고 싶은 도서관,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 이웃에게 알리고 싶은 도서관. “책과 함께 가는 문화” 정독도서관의 화두다.

정독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도서관으로, 1일 이용자가 5천명이 넘으며, 5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도서관이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서울 종로구 북촌길)하고 있어 지역주민 보다는 서울 전역에서 또는 인근 직장에서 일부러 정독도서관을 찾아오는 마니아들도 많다. 그리고 성인 이용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설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심지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주민 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해 야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정독도서관은 책만 읽기에는 아까운 도서관이다. 정독도서관은 세상의 흐름에 맞춰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찾고 꿈을 키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평생교육의 터전이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정독도서관에서는 책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미래세대에 멋진 선물을 오늘도 만들고 있다.

### ●●● ‘명품도서관’에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

주간한국 기사 타이틀이다. YTN 라디오 방송에서도 명품도서관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독도서관을 인터뷰했다. 쑥스럽지만 이런 말을 해보는 것은 정독도서관을 명품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서와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책을 보고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용자 수가 늘고 이용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서관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정독도서관이 지향하는 독서·문화예술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책과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루트를 책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와의 만남,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둘째, 정독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센터 등 타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된 독서와 관련된 특성화 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셋째,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도서관을 표명, 인근 박물관, 아트센터, 영화관, 출판사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바로보기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넷째, 문화적 소외계층인 장애우와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등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 ●●● 책, 독자, 작가와의 만남

정독도서관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이용자들의 발길에 의지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하는 방법을 택하여 책을 전파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힘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가와의 만남 및 낭독회 운영이다. 신간도서 출판과 함께 작가와 독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작가와의 만남은 2010년부터 도서관, 출판사, 서점이 함께 힘을 합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23분의 저자와 3,068명의 독자와 만남의 장을 가졌다.

그동안 김훈, 신경숙, 박범신, 한수산, 김영하, 서영은 등 국내 저명한 문학 작가와 이권우, 신미식, 이재복, 우기동 선생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작가와의 만남' 과 함께 작가의 작품 전시회인 '작가전' 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용자들의 독서 흥미를 이끌어 내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자 호응에 힘입어 직장인들의 참여가 쉽도록 '작가와의 만남' 은 주로 야간에 진행되고 있으며, 정독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독서문화 트렌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작가와의 만남

### ●●● 멀티플 독서 · 문화예술 공간

정독도서관은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모임이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독서회와 책 읽기 모임, 학습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모임과 행사는 도서관을 항상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든다.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닌, 음악회도 열리는 공간, 영화와 음악을 감상하고, 갤러리에서는 미술작품도 감상도 할 수 있는 멀티 문화공간이다.

독서회를 통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있으며,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를 꿈꾸기도 하며, 과학강연회를 통해 과학자를 꿈꾸기도 한다. 또한 세미나실을 주민들을 위한 토론장, 동아리 활동, 스터디 공간으로 제공하여 새로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

정독도서관에서는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야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고전철학 강좌로 명심보감, 논어, 대학을, 서양미술읽기, 글쓰기 클리닉, 스크린 영어 등 직장인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바로보기 프로그램인 북촌의 궁가 이야기는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키워드 한국문화, 우리고전 재미있게 읽기 등의 인문학 강좌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과학강연 프로그램 '금요일에 과학 터치' 가 1년 내내 금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다.

### ●●● 초록아이들과 함께 하는 책 읽기, 희망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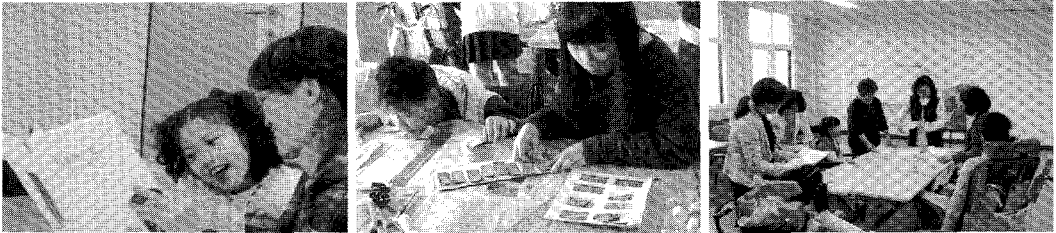
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우수프로그램 시상'이 있었다. 정독도서관은 특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분야에서 '초록아이들과 함께하는 책읽기, 희망 만들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초록아이들과 함께하는 책읽기, 희망 만들기'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초록이동봉사대 지체장애 우 9명을 대상으로 한 독서흥미 유발과 독서습관형성을 목표로 하는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이다. 2008년 4월부터 2·4주 화요일에 월 2회 사서 2명, 자원봉사자 3명이 차시별 선정 주제에 따라 독서프로그램 운영, 집단지도, 모둠별 지도, 개인지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프로그램 내용

구분	활동주제	주요내용	낭독도서
1차시	마음열기	· 독서 흥미도 조사 · 아동 특징 파악	웃는 고양이
2차시	나 자신 사랑하기	· 어울리는 단어 찾기 · 감정 표현하기(스티커)	저승에 있는 공간
3차시	부모	· 정독도서관 야외수업	나
4차시	어린이날	· 인상적인 부분 찾기	마고할미
5차시	사랑	· 내 마음 속 좋은 마음	내꼬리
6차시	사랑	· 음악이 있는 그림책감상	내가 라면을 먹을 때
7차시	친구	· 나의 비밀친구	구름빵
8차시	서울시립박물관 (르누아르전)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과 만나는 행복	
9차시	민속박물관 관람	· 한민족생활사 알기	
10차시	영화감상	· 마다가스카	친구랑 싸웠어
11차시	만남	· 주사위 게임놀이	송이의 노란우산
12차시	감정	· 풍선활동	나는 작아요
13차시	두려움	· 빌리와 걱정인형	치킨마스크
14차시	가을	· 책 속 숨은 그림찾기	일곱 마리 눈먼생쥐
15차시	자신감	· 피카소 그림감상	이야기에 훌쩍 반한 괴물
16차시	크리스마스	· 비발디 음악감상	지름길

독서지도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북토크(Booktalk), 전자책, 동영상 등으로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고 정서적으로 소외된 어린이가 독서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편안한 접근, 문화체험, 낭독회를 접목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초록아이들과 함께하는 책읽기, 희망 만들기

### ●●● 꿈을 만드는 도서관, 꿈자람교실

정독도서관에서는 2009년 6월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2~3학년 20명에게 온돌마루로 된 전용교실을 마련하여, 독서교육을 기초로 학습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술치료를 통한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국어·영어·수학·컴퓨터·한문 학습을 위한 전문 담당 교사가 기초학습을 책임지고 있다.

꿈자람교실은 숙제 돌봐주기, 학습프로그램,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학력 보장 등 학업성취도 향상 및 학업동기를 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을 통한 학습흥미 고취 및 독서활동의 생활화로 책과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다. 꿈자람 아이들은 책 읽는 것이 즐겁고 도서관에 와서 아는 것도 많아졌다고 자랑한다.



▲꿈자람교실

정독도서관은 오늘도 책을 통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살아가면서 삶의 자락마다 책이 꼭 필요할 때 도서관을 떠올릴 수 있기를, 다시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도서관은 바란다. (☺)

〈표 2〉 정독도서관 10월 문화행사 안내

행사시기		행사명	참가대상
일자	시간		
10.5~10.26 (매주 화)	19:00~21:00	우리고전 재미있게 읽기(1강~4강) : 한중록, 조선 후기 성소화선집, 창선감의록, 홍길동전, 전우치전	관심있는 누구나
10.4	19:30	신경민 기자 초청 강연회	관심있는 누구나
10.18	19:30	제주올레 서명숙 작가와의 만남 : '꼬닥 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 저자 서명숙 작가와의 만남	관심있는 누구나
10.24	19:30	이재현의 인문학 강좌 '두더지 지식 클럽'	관심있는 누구나
9.24~10.12	10:30~15:30	제2기 서당훈장자격연수	60세 이상 어르신
10.7~ 12.16	14:30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밤골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읽기)	밤골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22	14:00	성모병원 소아암 환자 대상 전통문화 체험 (문방가구 만들기)	소아암 어린이
10.30	15:00	다원예술공연, 詩 線 그리고 人	관심있는 누구나
11.4	19:30	조경란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유지선과 작 가가 신작 『복어』에 대해 이야기, 전문 낭독자 의 낭독, 복어를 테마로 작곡한 음악 연주)	관심있는 누구나
10.1~12.3 (매주 금)	19:30	도서관과 함께하는 서양미술읽기	관심있는 누구나
10.5~12.21 (매주 화)	19:00	고전철학강좌 논어	관심있는 누구나
10.7~11.5 (매주 목)	19:00	알기쉬운 부동산법	관심있는 누구나
10.1~10.29		송~도서관 탐험: 학교 및 공공도서관 활용법 지도	동신초등학교 외 5개교
10.4~10.29		올챙이 도서관 첫걸음: 도서관가 친구하기 및 책 읽기 지도	남산초등학교 외 4개교 2학년
10.2~10.30		체험~도서관사서: 도서관업무 소개 및 책과 도서관에 대한 일반 상식	삼선중학교 외 2개교 도서관
매주 토	11:00	토요일에 만나는 재미난 동화교실	유아
매주 월,금	10:00	초등 어린이 1일 독서교실	초등학교 학급단위
매주 화,목	10:00	미취학 어린이 1일독서교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급단위